

숲 정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
하느냐?”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 16, 15-16).

연중 제2주일

제1독서 : 이사22, 19-23

제2독서 : 로마11, 33-36

복음 : 마태16, 13-20

강론

“예수의 물음은 오늘도 계속된다”

이덕근 신부/금마천주교회

사람은 그가 지닌 특성으로 인하여 물음으로 들어쉬고 대답으로 내어뿜으며 마음의 호흡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며 또한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한다. 사람만이 묻고 대답함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행위로써 사는 것의 의미를 마련할진데, 오늘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께서 그 인간의 특성을 간파하셨을리야.

오늘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음으로써 베드로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신다. “당신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생겨나는 크고 작은 불협화음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보게 된다(국가간의 분쟁, 계급간의 갈등).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창씨개명 전인 시몬 시절에 평범한 인간이기에 빠졌던 유혹들, 즉 무력이나 금력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는 한 갈등해소는 분명 힘들다.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특히,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심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형제들을 살리고 보는 삶을 생활화할 때 해결은 가능하여진다고 본다.

예수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은 그 물음과 대답으로 인해 이제 하느님과 인간이 같은 숨통으로 마음의 호흡을 같이 하게 된 사건이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의든, 타의든간에 예수의 숨통에서 호흡 마스크를 떼어버린 형제들, 어디에다 입을 대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 외교인들에게, 먼저 예수의 물음에 답하고 예수를 호흡한 우리가 생기있는 기쁨과 평화도 지녀야 하겠지만 호흡기로 초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있고 우리는 교회의 사람들이다. 오늘날 통일조국을 염원하는 우리 민중에게 감옥 속의 바오로 사제는 오늘 예수의 질문에 답한 어두운 조국의 밝은 얼굴이다. 면회실에서의 문 신부님과 포옹이 다시 그렇다.

소리

“더위를 먹었나?”

절기로 보아 처서가 지났으나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가 예상된다. 올 여름이 어찌나 무더웠던지, 금년에는 더위를 먹은 사람(사건)들도 제법 있었다. 그 중의 몇을 꼽아보라면 무엇을 고를 수 있을까? 되지도 않을 민족 대교류를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떠벌리던 사람들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우스개 소리를 지어낸 사람들과 관련된 재판의 상고심 판결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도대체 어찌자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법이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발단이 되는가? 그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제6공화국의 뿌리라고 말할 하는 6·29선언 하나만 보아도 그렇다. 노루뿔 우려먹듯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6·29선언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또 그것이 제6공화국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다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나온 임시방편의 항복선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뒤죽박죽으로 되고 만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으니” 우리의 행위도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로마서 11장, 오늘 제2독서).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囹

숲정이 산책



❁ 전주교 전주교구 성소국 신설 ❁

교회의 장래는 얼마나 좋은 사제가 많이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착한 목자' 보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비교적 구(舊)교우가 많고, 방인 사제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교구는 전국에서도 사제 성소, 수도 성소가 가장 많은 교구로 그 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이농(離農)과 도시에 편중된 교육시설은 점차 성소의 감퇴를 초래하게 되었다. 더욱이 아이를 많이 갖지 않는 보편적 사회 현상은 그 속도를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회는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소국'을 신설, '사제 성소 개발 업무'를 전담케 하였다. 타 교구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건다. 새로 신설된 성소국의 주요 업무는 ① 사제 지망자 개발과 양성 교육 ② 신학생 지도 및 교육 ③ 성소 후원 사업 강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성소 개발의 주역은 역시 가정과 본당이다. 열심한 가정, 그리스도를 닮은 맛있는 사제의 모습만큼 사제가 되고 싶은 열망을 키우고 유지시켜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성소 육성의 의무는 전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완전한 그리스도교적 실생활로써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들이 믿음과 사랑과 신심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가정들이 마치 '준비 신학교'와 같이 될 때, 이 일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며, 또 본당들이 그 필요한 생활에 젊은이들을 참여시킬 때, 크게 공헌하는 것이다. 교사들과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 특히 가톨릭 운동 단체들과 어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청소년들을 계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모든 사제들은 성소 육성에 사도적 열성을 최대한으로 드러내야 하며, 자신들의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명랑한 생활과 사제적 상호 애덕과 형제적 협력을 보여 줌으로써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제직으로 이끌어야 하겠다"(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2항).

주말 연속극의 '병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8시부터 50분간 방영되는 MBC-TV 주말 연속극 '배반의 장미'는 현재 국내 어느 연속극보다 많은 시청률이 확보된 '재미있는 드라마'로 알려져 있다. 사실을 확인해보고 싶어 시간에 맞추어 아파트 단지를 돌아 보았다. 단지 내 수퍼 아주머니도 그것을 틀어 놓고 손님 오는데는 신경을 못 쓰는 모습이고, 미용실에는 주인과 서너 명의 머리하는 손님들이 바야흐로 몰두하고 있었다. 약국집도 역시였고, 집집이 크게 높인 그 연속극 소리가 동마다 단지 내에 울렸다.

그 연속극의 최근 내용은 주인공 남자(이 연속극은 주인공이 여럿이라 딱 집어 중심인물을 들 수 없다)의 둘째 부인이 막 그 남자 살해미수범인 사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어 '관객'들의 마음을 한껏 사로잡고 있는 중이다.

이 연속극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본다. 주로 중학교 여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고생, 여대생, 미혼 여성, 부인들에 이르기까지다. 극작가 김수현의 극들은 대개가 버림받은 여자나 상처받은 여자가 나온다. 그리고 버림받으며 상처받는 과정과 그 이후에 그 여자들은 대개 혼자 사는 것이 은밀히 '울은' 것임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준다(「상처」, 「모래성」 등이 그간 '성공작'들이었음).

이번 연속극의 문제점으로 골라낼 수 있는 점은 재벌회사

집안 사람들(남자 주인공 가족)의 성격들이 하나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 줄거리 전개가 추리성을 띠고 있어서 다음 번을 안 볼 수 없게 돼 있다는 것, 주요 인물들의 상처 제 공자를 시청자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범인 여자를 '죽여 없애고 싶다'는 욕망을 은연중 부추기고 있는 폭력 암시적 효과, 상당히 자주 침실과 침대 배경 장면이 나오는데 여자 앞에서 남자가 팬티만 입고 잠옷을 갈아 입는다거나 누운 채 깊이 겨안은 장면이 꽤 자극적이라는 것, 극중의 아이를 놓고 어른들이 서로 빼앗으려는 듯이 돌아가는 태도들의 잔인함, 대사의 표현방식이 툭툭거리기·빈정대기·거침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도사리는 식이라는 점 등이다.

성과 관련된 선정적인 불쾌감, 결혼제도의 혼란이 뒤편하게 펼쳐지는 윤리적 문제, 대안없는 가족관계의 난맥상, 청소년들에게 미칠 부도덕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연속극은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볼 만한 것이 못된다. 쇼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도 천박한 상태인 것은 이미 오래된 평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수준의 도덕성을 대중매체에서 바란다는 것이 무리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 기획에 신자들만이라도 옮겨 '보고', 최소한도의 압력행 사라도 방송매체에 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 ❏

☎ 임정골한의원

원장 임의성 (스태포노)
간호사 정성옥 (대레사)

☎ 3-2403, 445-2403
척추교정 및 디스크상담
(군산) 국도극장 뒤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범디도

☎ 84-2628

맥코이이온정수기

국내·외 최고판매의 (보건사) (주) (1210호)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
(주) 모리아 크리스탈 전라사업본부
대표 서동주 (스태포노)
경원동 전북대 치과대학 시가리
☎ (0652) 86-1077, 82-8038
교우상환영, 남·서원계곡수, 수질검사무료

천자문·사자소학
사군자·전각

명륜서예한문학원

원장 선기정 (요셉)

효자성당 옆

☎ 82-6492

잡 관 /

“통일! 꼭 올 것만 같았다”
- 8·16 임진각 통일염원미사에서 -

지난 7월 20일 노태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장엄하게 선언하였다.

“나는 해방 45주년을 맞는 올해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민족 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8월 13일부터 닷새 동안 판문점을 통로로 열어 놓고 북한 동포들을 제한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중략) 또한 이 기간 중 우리 국민 누구라도 제한없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오고, 누가 갔는가? ‘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90 통일염원미사!’ 이 미사 외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또 한번 멋지게 국민을 속였고, 김일성 역시 통일을 원치 않는 정치꾼임이 들어난 것. 그러나 7,000여 명이 참석한(전주교구 참석자 1,700여 명) 이 미사는 우리의 한(恨)과 원(願), 그리고 감사의 정(情)이 듬뿍 담긴 미사였다. 미사 내내 비를 맞아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었지만 우린 행복했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우리의 가락으로 봉헌한 이 미사는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통일이 꼭 올 것만 같은 은은한 믿음이 짝트는 미사였다.



교 구 소 식

※ 축! : 부제품 : 김진철(빈첸시오) - 남원
시증직 : 이원재(다 두) - 덕 진 김영수(헨 리 코) - 신태인
이영우(베네딕도) - 남 원 정성만(세자요한) - 창인동
장상호(시 몬) - 둔울동 서석희(요 셉) - 옥봉
정삼권(스테파노) - 함 열 } 8월 29일(수) 오전11시 광주가톨릭대학 성당

1. 교구청에 성소국을 신설하고, 광주가톨릭대학의 교수신부 파견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제 인사 발령을 합니다.
유영도 신부 : 도통동 주임 → 광주가톨릭대학 나춘성 신부 : 군중 → 순창주임 경규봉 신부 : 필리핀 교포사목 → 도통동 주임 양경배 신부 : 순창주임 → 교구 성소국장
* 인수인계 일시 : 8월28일(화) 오전10시 교구청 회의실(구, 홍보국 사무실)
 2. 보좌신부 부임 후보 본당 선전(1991. 1. 배치 예정) : 전주 중앙 제2보좌, 인후동, 이리 영동동, 정읍 시기동
 3. 축! 견진 : 주현동 성당 9월 2일 오전10시 4. 재무평의회 : 8월30일(목) 오전10시
 5. 서신동 천주교회 축성식 : 9월 8일(토) 오후3시
 6. 교구 사진동우회 촬영 : 9월9일 수록도, 당일 7시 가톨릭센터에서 출발 회비-1만원(45명) 대상-사진에 관심있으신 카메라 소지자, 교구 사진동우회 회원 접수-9월 1일(토)까지 교구 평협(85-2935)
 7. 전주교구 어린이 성가 경연대회 : 9월23일 오후1시 전주 성심여고 강당 대상-각 본당 주일학교 어린이
 8.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8월31일 밤11시 전동성당 강사 정승현 신부 87-2722
 9. 전주교구 종교음악 연구회 성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9월1일(토)-2일(일) 천호피정의 집 강사-최병철 교수(성심여대), 배행숙 교수(청주대) 대상-각 본당 성가대원 120명(선착순) 회비-1만원 접수-센타 안내실 출발-1일 오후3:30 센타
- ※ 축! 영명 : 28일(성아우구스티노) 김영일, 한정현, 이동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요심이 (890) 김병오



인? 나 비 커 텐

선경커피, 스완카페토, 브라인드
홀딩도어, 홀팻선 (침대카바
전문) 및 기타
정 겐 (알베르토)
김 강 (엘리사벳)
전주시 중앙동 2가 53-5 (라자가구역)
☎ 82-2226, 86-5611

꿈란불치병상담소

중 풍 · 관절염 · 디스크
신경통 · 알레르기성피부
박장춘 (빨리치도) 임혜선 (에스텔)
자연식품 및 송죽알로에
인후 2단지 금성교회 앞
☎ (사) 251-0848. (자) 222-3271

유리·도자기 특수 열처리 인쇄
· 각종성화 (그림접시, 커피잔, 물잔, 붓통 등)
· 각심신단테 (레지오, 꾸리아 등) 및
가정제대용 성화전동맥자화병
· 본당행사기념품, 결혼, 회갑, 담배품 및
판촉물 일체

정동기획
김 정 협 (베네딕도)
이 정 레 (올리나나)
☎ 72-3211. FAX 291-8990

고도의 기술 선명한 색상재현
25분 완성
전북칼라현상소
대표 오희웅 (양보로시오)
전주시 고사동1가 연금매점 남쪽
(오거리) ☎ 83-5335

양재 · 한복 · 홈패션
노라노 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러인드레아)
동부시장앞 · 민정당시영
☎ 86-2715

혼수전문점
주단 · 침구 · 모시 · 삼베
깨끼한복 · 각종이불맞춤
부인주단
김 한 중 (오 한)
황 인 재 (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늘부보쌈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봉 교 (미카엘라)
호사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 ~ 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1. 예비자교리 안내: i) 일요일: 학생-전8시, 일반-전10시30분 미사후. ii) 일반-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2. 미니피캣회원 피정: 9월2일, 전9시30분~후5시, 회비-2,000원
 3. 전주교구성가대 합성회를 위한 세미나: 9월1일 후3시~2일 후5시
 4. L·M선서식: 28일 어머니미사중, 29일 저녁미사 중.
 5. 모임: • 성령기도회-30일, 저녁미사 후 • 빈첸시오-31일, 전9시30분 • 제대회 31일, 전10시30분 • 임마누엘회원: 공식미사 후
 6. 금주 청소: 인후1, 2반 자주 청소-인후3, 4반, 애개 헌납)
 7. 통일기원 미사에 함께하신 분 감사합니다(감비잔금은 양심수인)
 8. 부제님·학사님 감사합니다: 김영태 부제님, 최베드로, 서기물로, 이가브리엘, 김레오 학사님(방학동안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860,530원 ☐ 교무금: 45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회장단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7월22일 영세자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3. 화요성서 교리: 28일 저녁미사 후.
 4. 병자 동성체: 31일 오후2시.
 5. 주일학교 개학: 9월1일 오후3시.
 6. 사목회: 9월2일 저녁미사 후.
 7. 예비자교리 안내: 매주일 오전9시 수녀님반,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신부님반.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① 박종호 ② 강영애
 봉헌-박종호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오교성 ① 송철수 ② 최경희
 봉헌-송철수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71,390원 ☐ 교무금: 831,800원
 ☐ 성모승천 축일: 347,09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1. 제대회: 공식미사 후. 2. 울드레아: 29(수) 저녁.
 3. 회장단 단합대회: 백암리 강변. 4. 신부님 휴가: 금요일까지.
 5. 사목회: 2일 저녁미사 후.
 6.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주).
 7. 성경읽기: 말라기.
 8.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 김봉길 ② 강경자.
 봉헌-김봉길, 이승복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경제 독서① 유순천 ② 이석남.
 봉헌-최상욱, 최상운 씨 부부.
 9.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218,32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오늘은 연중제21주일!
 1. 회의: ① 꾸리아-오늘 오후2시 ② 사목회-다음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③ 자모회-다음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
 2. 알림: ① 가정방문-9월5일(수) 12반~13반, 9월12일(수), 14반~15반 ② 수녀님하계휴가-8월27일(월)~8월31일(금)까지 ③ 울드레아 입원개관: 간사-김베근(스테파노) 형제님, 총무-김현필(베드로) 형제님 ④ 교무금-신자들의 의무금인 교무금을 성의껏 납부하십시오. ⑤ 예비자를 인도합니다-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 후(성인단)매주일 오전9시(학생단) ⑥ 영세자들은 사진 찾아 가세요(사무실에).
 ☐ 지난주 봉헌금: 597,000원 ☐ 교무금: 451,000원
 ☐ 성모승천특별 헌금: 388,700원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점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1. 사목회·요셉회·사라회·막달레나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황금의 궁전 꾸리아: 9월1일(첫토요일 오후2시30분).
 3. 어린이 미사: 9월1일(토) 오후3시.
 4. 청소년사 구역: 3단지 서편 구역(1,2,3반).
 ☐ 지난주 봉헌금: 343,380원 ☐ 교무금: 451,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충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성전보수헌금 바람. * 8월은 예비자 인도의 달(9월2일-입식).
 1. 섬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2시(예비자인도 카드 제출바람).
 2. 울드레아: 오늘 공식미사 후. 3. 철야기도회: 31일(금) 저녁1시.
 4. 재속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1시30분. 5. 성체강복 및 체조배: 6일(목) 오전10시~저녁미사 전. 6. 본당 사무용품 컴퓨터 기증하실 분을 구합니다(400만원 상당).
 7. 보좌신부님 휴가: 8월27일~31일(아침미사만 있음).
 * 금주 보수비 헌금액: 577,000원 * 현재 모금총액: 151,550,020원
 * 금주 보수비 신입액: 200,000원 * 현재 신입총액: 219,731,399원
 ☐ 지난주 봉헌금: 1,320,69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환
 ※ 전신사 섬지순례: 9월16일(일) 장소-미리내, 점수-9월2일까지, 준비물-미사도구, 도시락(개인 또는 단체별로) 참가비-5000원.
 1. 울드레아: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오늘 오후3시.
 3. 사무장 휴가: 27일~31일까지.
 4. 구역장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금주 전례: 해설-김광탁 복사-최춘, 정계식
 봉헌-정순태 부부.
 차주 전례: 박종구 복사-지동호, 이정문.
 봉헌-서영상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39,710원 ☐ 교무금: 366,500원

*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영근
 ※ 주일미사와 매일미사에 시간을 지켜주시고, 많은 미사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1. 금주 전례: 해설-한병강 독서-봉헌-염상영 부부.
 차주 전례: 해설-장병순 독서-봉헌-김완철 부부.

* 효자동

본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1. 수녀인사이동: 김마리프렌 수녀(본원)-2년동안 수고에 감사 이마리아스텔 수녀-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축! 영명: 김영일(아오스름) 신부님(8.28)-효자본당 교일등.
 3. (91년)부활반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① 일 09:30(교육관) ② 수 후7:30(교육관) ③ 금 10:40(교육관) * 교리는 9 첫주부터. * 1신지 1예비자를 인도합니다. 4. 모임안내:(파티마의 모후, 꾸리아-금주 수요일 10시(교육관) ② 성모기회 일일피정-9.1.(토) 전9시, 후5시 ③ 안나회-다음주 11시 사 후. 5. 매월 마지막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6. 성체공사를 위한 2차헌금: 379,300원 월초에 감사. 성모승천 축일 헌금: 515,660원, 필리핀의전학생자를 위한 헌금: 22,170원. ☐ 지난주 봉헌금: 893,000원 ☐ 교무금: 625,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 나눔의 헌금 주입입니다(독배 진다네 위함).
 1. 꾸리아: 공식미사 후. 2. 돌담회: 오늘 오후6시.
 3. 예비자 환영식: 9월 첫주 공식미사 후. 4. 성령기도회: 화요일 저녁미사 후, 성령세미나 방문신분 참석바람.
 5. 섬지순례: 배론성지 9월9일 신차순 420명.
 6. 가정방문: 28일-태하, 29일-우전3,4반. 7. 첫영성체 교리시간: 9월10일부터.
 8. 전례단 모집합니다: 9월13~14. 9. 생활성서 구독 신청.
 차주 모임: 사목회, 반석회, 요셉회.
 금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 김항렬 ② 임양원.
 기도-백남철, 김경혜.
 차주 전례: 해설-김인규.
 지난주 봉헌금: 617,450원 ☐ 교무금: 748,000원